

아직도 늦추위의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바로 1919년 3월 1일, 전국각지에서는 독립운동이 폭발되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손아귀에 놓여 생활하던 우리 국민들도 독립을 하기 위해 폭발을 한 것이다. 이 지역에도 활개를 치고 있는 농들의 소행을 보다못한 애국지사들이 나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으니 그 중의 한분이 서몽조 선생이시다. 어려서부터 언제나 행실이 곧고 의지가 강하시던 서몽조 선생께서는 모든 핍박속에 생활하던 우리국민들을 보시고 언젠간 농들을 이땅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셨다. 비밀리에 조직된 서몽조 선생외 김천풍, 오상근, 임천근, 정수길등 5명의 치밀한 계획아래 기회를 엿보던 중 4월 4일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선장 장날에 주동한 동지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였다. 곧봉을 휘두르며, "왜농들은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물러가라." 외치며 주재소의 유리창을 파괴하는등 이제껏 참아 왔던 울분은 불길처럼 번졌다. 농들은 눈이 새빨개져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려 했지만 물밀듯 밀려드는 함성소리와 그들의 의지는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이에 호응한 200여명의 면민들도 오로지 주권을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장터는 온통 삭막한 분위기에 쌓여있었다. 부상자들로 들끓고 너무나 거세게 밀려 오는 운동자들에 당황한 농들은 이리 뛰고 저리뛰고 그야말로 수라장이었다. 그로인해 서몽조선생은 주동한 동지들과 함께 주재소에 수감되었다. 여기저기로 질질 끌려다니며 몽둥이를 아무곳에나 휘두르는등 그외에도 고문은 말할수도 없었다. 세찬 고문속에서도 그 분의 강한 뜻은 더욱 굳어질 뿐 조금도 굽히시지 않으시자 공주형무소로 이감되었으며 5월 1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곳의 고초는 더욱 심했으나 당신의 몸보다는 밖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만을 애통해 하셨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쓰라린 옥고에 시달려 신병으로 고생하다가 형기만료로 출옥하였으나, 왜경의 감시로 인하여 구국의 웅지를 펴보지도 못하시고 8. 15광복을 맞이하였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 하였구나 ! 농들은 이제 이 땅에서 물러갔다 !" 선생은 가슴 후련히 외쳐 만세를 불렀다. 이젠 나이도 지긋하시고 반불구가 되어 집에 돌아오셨으나 한쪽다리의 힘줄이 끊어져 말할수도 없이 통통부어 올랐다. 그 동안의 고초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것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온몸은 성한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멍이 들었다. 머느리는 정성을 다하여 간호했지만 1952년 3월 24일 72세를 일기로 한많은 생을 마치시었다. 눈을 감으시기 전까지 내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함인지 너희들은 꼭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농들로 인해 우리민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으며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을 숨지게 했던가 ! 우리는 한참았던 그 세월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그 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때는 6.25 동란이라.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 공동묘지에 모시었으며 갈수록 그 분의 행적은 빛났다. 이제 비로소 애국지사 묘소 정화 사업으로 1982년 5월 20일 이곳 선장면 군덕리 179번지에 이장하였다. 선생의 높은 애국정신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고 이를 높이 추앙하여 후세에 영원히 빛내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 선생의 항일투쟁은 조국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거룩한 애국의 열은 민족 정기의 정화요, 인류정의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